

《몽구스 크루》

이번 호 <청소년 책과 소통하다>에서는 브레이크 댄스를 하는 이들, 이른바 비보이(B-boy)들의 모습을 담은 청소년 소설 《몽구스 크루》의 감상을 나눠보기로 합니다. 청소년 독자가 생각하는 소설의 느낌을 들어보고 작가에게 물어보고 싶은 궁금증을 풀어보았습니다.

비보이의 생활상을 사실적으로 그려내 호평을 받고 작품. 형 친구보다 우월하다 믿어온 몽구는 뜻밖에도 사고뭉치 형이 브레이크 댄스에 천부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유도 없이 어느새 브레이크 댄스에 빠져드는 몽구. 그러나 바라는 만큼 되는 것이 없는듯 보여 방향과 갈등을 거듭한다. 형제간의 경쟁 심리, 공부에 대한 압박 등 우리시대 청소년들이 느끼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흥미롭게 드러난다.



《몽구스 크루》
신여랑 지음 | 사계절 | 202쪽 | 값 8,500원

몽구스 크루. 이 책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땐, 책 내용을 짐작할 수 없었다. 그래서 책을 받기 전에는 ‘몽구스 크루가 뭘까...’ 하고 혼자서 생각했었다. 물론 찾아보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이름의 뜻을 찾아보게 되면 책의 내용에 대한 환상이 깨질까 생각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책을 펼쳐 작가의 말을 읽는 순간, 그 희열! 이런 곳에서 희열을 느끼면 이상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아무 정보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내용의 책을 접했을 때 가지는 느낌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작가의 말을 다 읽은 후, 한 장을 넘기고, 두 장을 넘기면서 신여랑 작가님의 글이 내가 좋아하는 문체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들떴다. 어린 비보이의 생활을 담은 소설은 잘 찾아 볼 수가 없어서 꼼꼼하게 읽었다. 간결하면서도 작가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솔직하고 짧은 문장. 그런 글은 일본 작가의 책에 그런 특성이 있어서 일본 소설을 주로 찾아 읽었었다.

몽구스 크루는 공부가 아닌 다른 일에 빠져 있는 학생들의 고충을 너무나도 잘 표현한 것 같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왜 부모님은 반대하시는 걸까?’, ‘난 내 꿈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었던가? 부모님의 제지를 받고 있는 학생이라면 한번쯤은 생각해 봤을 말이다.’

내가 정말 원하는 일을 부모님은 공부에 방해된다고며 만류하는 상황. 대한민국 학생들 대부분이 느끼면서 공부한다. 그리고 때로 좋지 않은 방향으로 일탈을 즐긴다. 현실에 비해 책의 주인공 몽구는 다른 행동을 취한다. 착실한 자신보다 사고만 치고 다니는 형 친구를 더 챙기는 엄마. 그 상황에서 몽구는 공부에 구속 당하지도 않고, 일탈을 즐기지도 않는다. 단지 하고 싶은 춤만 열심히 추는 그의 모습은 내게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었다. 다른 식으로 일을 회피하기보다는 차라리 맞서는 게 낫다는 거다. 물론 처음에는 몽구도 단지 형을 따라잡고 싶다는 집념에 시달렸지만 결국에는 자신이 춤을 출 때 희열을 느낀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인생에서 공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청소년인 우리들에게는 저마다



각자의 꿈이 있다. 그리고 누구나 자신이 꿈꾸는 그 일에서 최고가 되고 싶어 한다. 공부는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단계이다. 중요하지도 않고, 중요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그냥 부가적인 사항일 뿐이다.

덧붙임 : 비보이들의 춤 이름과 테크닉 용어가 어려웠지만, 다행히 책 뒤에 정리가 되어있어서 읽으면서 작가분께 또 한 번 고맷다. 특히 몽구라는 이름이 계속 머리에 남았다. 흔하지 않은 이름에도 친근하게 느껴지는 그런 이름. 특이해서였을까? 앞으로도 신여랑 작가님이 흥미 위주가 아닌, 청소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책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다.

작가님 도형의 여자친구 헤미와 필섭이라는 인물은 단순히 갈등을 부추기는 역할에 그치는 듯 한데요. 이들은 왜 등장한 건가요?

질문을 읽고 나서 정말 뜨끔했어요. 인정해요. 초반부에 심상찮은 분위기를 풍기며 등장한 헤미가 후반부에 가서 유아무야 사라져버린 것. 필섭이 그저 '나쁜 놈'의 캐릭터로 단순화된 것. 변명을 하자면, 헤미나 필섭을 통해 막 나가는 척, 센 척하는 아이들의 여린 속살을 드러내고 싶었으나 실패했다는 정도.

나는 이 책을 읽기 전부터 비보이에 관심이 많았다. 역동적인 동작과 흐름에 몸을 맡기는 비보이들의 태도가 좋아서이다. 나는 많은 비보이들을 봤다.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역동적이고, 자유로워 보이고, 무대 위에서 관중과 무대를 깔볼 줄 안다. 반면에 많은 고민이 도사리고 있는 사람들... 하나같이 가족들과 마찰이 있고, 열등감에 시달리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 머리 아프게 고민하는 사람들. 몽구스 크루에서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화려한 춤의 밑바닥에 감춰진 그들의 고민과 갈등을 잘 그려낸 것 같다. 보는 내내 문장으로 나누어진 장면들이 주는 현실감에 감탄했다. 이 책의 무대는 작은 비보이들의 세계다. 뛰어난 것에 대한 열등감이 주류가 되고, 그것이 바로 발전의 계기다. 유치할 수 있지만 가장 확실하게 발전할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열등감이라고 생각한다. 책의 주인공은 자신보다 뛰어난 형에게 표면적인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열등감은 언제까지나 표면적이다. 형의 춤에 순수하게 감탄하고 가슴 졸이는 모습은 이야기의 끝에서 주인공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짐작하게 한다.

책의 서문을 보면 작가는 이 책에서 열등감을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다. 열등감이라는 것은 불만족이다. 자신보다 더 잘하는 사람을 뛰어넘고 싶고, 그 일을 남보다 더 잘하고 싶고... 세상 거의 모든 사람들이 열등감을 말할 때 이런 말을 할 것이다. 적어도 나는 열등감이란 열세한 것이 우세한 것에 대해 가지는 존경의 감정이라고 생각한다. 열등감의 대상을 뛰어넘기 위해 노력하는 행동이 바로 그 증거다. "적당히, 천천히, 무리하고 싶진 않다." 책 속 주인공인 몽구가 하는 말이다. 몽구는 '비뚤어진'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 열등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닌 척, 고상한 척. 열등감을 표현하고 싶지 않아서 말이다. 몽구는 생각하게 된다.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뭘 좋아하는지, 나의 춤은 허용되지 않는데 형의 춤은 허용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대답은 간단하다. 무대에 서는 순간 형은 진짜 비보이가 되어 상대를 가지고 놀고, 때로시키고, 자신마저도 때려준다. 그리고 엄청난 자신감. 이게 바로 허용의 이유다. 자신까지도 허용할 수 있는 춤이 바로 형이 떠받들어지고, 진짜 비보이가 될 수 있는 이유다. 좋다고 하면서도 적당히 하는 사람들, 누군가에게 열등감을 가지고 허울 좋은 시선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한번쯤 보여주었으면 한다. 꼭 비보이에 관심이 있진 않더라도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것 같다. 많



은 것을 느끼고 생각할 수 있고, 이미 있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책이다.

▶ 질문

저는 작가의 의도가 열등감의 표현이라고 생각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 작품을 쓰신 의도를 물어보고 싶어요.

작가의 의도는 독자에 의해서 해석되고 발견된다고 생각해요. 김경진 군처럼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요.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작품을 쓰는 내내, 열등감에 대해 고민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김경진 군의 '열등감은 열등한 것이 우세한 것에 대해 가지는 존경의 감정이다'라는 해석은 나에게 무척이나 신선하고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열등감의 또 다른 면을 보았다고 할까요.

▶ 답변

처음에 이 글을 읽을 때 솔직히 놀랐다. 저자는 우리의 또래가 아닌 비보이란 단어에 대해 생소한 세대인데 내가 정말 놀랄 정도로 정말 많이 알고 있었다. 비보이가 썼다는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오몽구라는 인물이 겪는 여러 가지 상황이 비보이가 겪을 만한 상황과 정말 많이 흡사해서 너무나도 사실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내용이 신선하다. 아마 다른 저자가 비보이에 관한 글을 썼다면 이렇게까지 표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책에 묘사된 공연준비와 공연을 할 때의 모습 그리고 연습실 상황은 현실에서도 충분히 겪을 만한 장면이다. 마치 실제 어떤 비보이의 삶을 담고 있다는 느낌까지 줄 정도다. 저자가 10대의 눈으로 썼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기에 모든 비보이중에서도 10대의 비보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 수 있을 것 같다.

만약 일반인들이 이 책을 읽으면 10대의 비보이들이 생활을 이해해주고 더 격려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체적으로 정말로 대 공감을 하였고 볼수록 빠져드는 책이다. 정말 한번 권장해주고 싶은 책이다.



▶ 질문

중간 중간에 욕설이 나오는데 사실적으로 보이기는 하나 독자가 읽을 때 "정말 책에서 이렇게 써도 되는 건가 10대들이 많이 읽을 것 같은데"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욕설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 답변

'몽구스 크루'를 쓰면서 했던 고민이 박재현 군 질문에 녹아 있네요. 현실의 반영과 교육적 당위. 그것에 대해 고민했죠. 그런데 현실의 반영만큼 교육적인 것도 없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현재 우리들의 폭력적인 언어습관(속어 비어 은어 신조어 등등)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 사실적이나 바람직하지 않다는 걸 자각하는 것. 자발적인 검열. 그거였죠, 제 생각은.

어떻게 비보이에 관해서 많이 알 수 있게 되셨나요?

반했으니까요. 좋아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은 사람을 부지런하게 만들잖아요. 여기저기 기웃거리게 하고 찾아다니게 하고 공부하게 하죠. 저도 그랬어요. 무작정 비보이 팀 연락처를 들고 찾아갔거든요. 그 친구들 도움이 컸죠.(지금도 연락하고 지낸답니다) 물론 인터넷도 뒤지고 공연장에도 가고 책도 읽었지만요. 하지만 제가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저 관심이 많다는 수준.

책의 주인공을 어떻게 비보이로 택하게 되셨나요.

솔직히 처음에는 '특이한 소재'로 끌렸어요. 일테면 머리로 접근한 거죠. 그러다 취재를 하면서 차츰 마음이 동했다고 할까요. 제가 만난 아이들은 춤에 관해서 만큼은 놀라울 정도로 진지하고, 순수하고, 치열했어요. 낭만적으로 말하자면, 별처럼 반짝였죠. 그래서 그 아이들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무엇이 그들을 별처럼 반짝이게 하는지.

몽구스 크루 멤버들의 모습을 통해 청소년들의 어떤 모습을 담아내고 싶으셨나요.

'당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의 눈물겨운 성장통'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한가요. 그게 목표이긴 했어요. 아이들의 문화, 욕망, 꿈 그것들이 빛어내는 갈등과 좌절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싶었죠. 과장하거나 미화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어른들이 보고 싶은 '아이들의 세계'가 아니라 아이들이 실제로 살아가고 느끼는 '아이들의 세계'를 그리고 싶었으니까요.

취재 과정 중 일어났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건 재미있는 이야기는 아닌데, 소설 마지막 장에 등장하는 힙합경연대회(배틀 오브 더 이어) 취재를 갔다가 탈진 비슷한 걸 했어요. 대회가 끝나고 나왔는데 머리가 핑그르르 돌더라고요.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렸죠. 간신히 지하철역까지 가긴 했는데 참을 수 없을 만큼 속이 거북한 거예요. 입을 틀어막고 어찌어찌 지하철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양변기 붙잡고 죽히 10분은 토했을 걸요. 그때가 7월 중순이었는데 아찔할 정도로 더웠거든요. 그 더위에 몇 시간 동안 흥분 상태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으니 그럴 만도 했죠.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청소년들을 위한 소설은 어떤 내용과 방향을 담고 있어야 할까요.

글쎄요. 원론적으로 말하자면 어떤 내용 어떤 방향도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봐요. 중요한 것은 무엇에 관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다루느냐, '어떻게' 형상화시키느냐 그것이 문제겠죠. 기본적으로 '청소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선부른 교훈이나 계몽, 피상적인 감상에 빠져서는 곤란하겠죠. 문학은 계몽의 도구도 순정만화도 아니니까요.

청소년들을 위한 소설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만큼 이 책에 대해 청소년 독자들이 많은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작품이 기대가 됩니다. 준비 중인 작품이 있다면 소개 해 주세요.

준비 중인 작품은 말하자면 청소년들의 성(性)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성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잖아요. 더구나 신체적인 변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청소년들에게 성이란, 그야말로 지대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고요. 그 자연스러운 현상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아이들의 성적 욕구, 고민, 갈등, 방황을 그럴 생각이에요. 가능하다면 유쾌하게. ☞



신여랑

1967년생. 홍익대학교 독문과와 서울예대 문예창작과 졸업. <몽구스 크루>로 제4회 <사계절문학상> 대상을 수상하며 작가로 데뷔했다.